



(회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735호 T. 02-784-3174 F. 02-6788-6985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19번길 10, 선진빌딩 302호 T. 031-875-0410 F. 031-875-0414

배포일 : 2024년 09월 27일(금)	담당 : 장한빛 비서관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	--------------	-----------------

박지혜 의원, "공영홈쇼핑, 해외 OEM 판매액 647억 원에 달해"

- 해외 OEM 제품 판매 비중 3년 연속 증가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으로 높은 비중 차지
- 박지혜 의원,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국내 중소기업 상품 발굴에 힘써야"

국내 중소기업과 농축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된 공영홈쇼핑의 해외 OEM(주문자 위탁 생산) 제품 판매 비중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영홈쇼핑 전체 판매액 대비 해외 OEM) 제품 판매 비중은 12.38%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해외 OEM 판매 비중은 ▲2020년 13.01% ▲2021년 11.16% ▲2022년 8.66%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10.3%, 올해 12.38%로 집계되며 지속해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한 해외 OEM 제품 판매액은 647억 2,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국 제품이 479억 1백만 원으로, 전체 해외 OEM 제품 판매액 대비 74%에 달했다. 이어 베트남 20.24%, 인도네시아 2.4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18년 공영홈쇼핑은 설립 목적과 맞지 않다며 해외 OEM 제품 배제를 시행했으나, 시행 1년 만에 OEM 상품 판매 확대를 하도록 정관을 변경해 정권 눈치 보기식 경영 방식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다.

박지혜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인 만큼 국내 제조 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라고 지적하며, “국내 중소기업 상품 발굴에 힘써 해외 OEM 제품과 국내 생산 제품 판매 비율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만큼 국내 중소기업 판로개척이라는 목표를 잘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끝>

[해외 OEM 공상품 판매 현황(방송상품)]

단위: 백만원

OEM국가	2020	2021	2022	2023	2024. 8.
네팔	-	-	-	7	-
말레이시아	179	-	-	-	-
미얀마	351	281	997	2,290	1,237
방글라데시	100	544	812	641	746
베트남	24,915	29,471	20,448	23,168	13,100
인도네시아	4,159	1,462	2,707	2,623	1,599
중국	86,277	64,050	52,550	57,732	47,901
캄보디아	93	-	-	29	145
필리핀	1,932	1,339	691	5	1
총계	118,006 (13.01%)	97,147 (11.16%)	78,205 (8.66%)	86,495 (10.3%)	64,729 (12.38%)
공영홈쇼핑 전체판로지원액	906,437	870,164	903,203	839,639	522,669

자료: 공영홈쇼핑 제출 자료 박지혜의원실 재구성